



가을여성제

내 혀가 내 입 속에 간혀있기를 거부한다면

餘聲, 女聲, 女性

남겨진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





2000 가을여성제

기획글

女聲 餘聲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사회이지만 그 안에서 묻혀지고 남겨지는 목소리들이 무수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이 소외당하고 배제 당한 채 남겨지는 목소리 안에 분명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이제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추측과 넘겨짐으로 구성되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 그녀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그녀들이 소리내어 말하는 여성과 사회를 바라보고 싶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묻혀있었거나 혹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던 여성의 시각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들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영화나 다큐멘터리 혹은 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출하고 이로써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직은 분명 소수이지만 그녀들의 목소리가 날개를 달고 힘껏 박차올라 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여자들의 기도

김정란씨의 시입니다

우리의 말은 너무 먼 곳에 있거나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세상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순한 몸이
세상을 꼭꼭 건디며
세상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사랑으로도
몸뚱이를 다 찢고
내장까지 들어와 닥치는

이 생생한 말의 느낌으로도
세상의 귀를 열지 못해서
이 가난한 허들에 마음쓸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느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생생한 육체로 생생한 세상 안에서
텅빈 유령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러나 쫓겨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 길 위에서 오래도록 헤매는
많은 유령 거지의 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허들 정성스레 거두었어요
차마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가난한 허들에 마음쓸까 싶었습니다

거지들의 허 우리 허에 덧대어 꿰매고
오늘도 귀막은 힘센 자들의 세상 길을 걷습니다

하느님 끝까지 가게 하세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이 가난한 허들을 사랑하므로
우리의 賤役을 부끄러워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만 사랑 안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餘聲, 女聲, 女性

남겨진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여성

1. 여성영화제

첫째날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판타지
9/19 화 오 후 6:00 ~ 9:00
 장 소 장기원 기념관
 서울 여성영화제 상영작 『밤이 기울면』 + 『아름다운 육체』 상영

둘째날 대중문화와 여성
9/20 수 오 후 6:00 ~ 9:00
 장 소 장기원 기념관
 서울 여성영화제 상영작 『바비 인형의 제국』 + 『팝의 여전사』 상영

셋째날 완전히 묻혀져왔던 여성들의 목소리
9/21 목 오 후 6:00 ~ 9:00
 장 소 과학관 111호
 (1)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작
 (2) 『숨결』

2. 그녀들의 얘기를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넷째날 최보은 · 김현미의 울트라 버라이어티 슈퍼 토크쇼
9/22 금 오 후 6:00 ~ 9:00
 장 소 과학관 111호
 출연자 최보은 - 케이블 TV가이드 편집장,
 씨네 21 "아줌마, 극장가다" 집필
 김현미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만화거리전

행사기간 by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내내 장 소 백양로



밤이 기울면 WHEN NIGHT IS FALLING

| 캐나다 | 1995 | 국영화 | 감독 패트리샤 로제마 Patricia ROZEMA |

환상과 일상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 <밤이 기울면>은 95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공개되었을 당시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 대학의 신화학 교수인 백인여성 카밀과 전위적인 서커스단의 단원인 흑인여성 페트라.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으며 다른 인종과 계급에 속하는 이 두 여성 간의 사랑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마술적인 사랑이야기를 청색과 갈색의 아름다운 화면 속에 담아낸, 사랑과 성에 대한 모험과 환상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다룬 매력적인 영화이다. 패트리샤 로제마는 일상, 꿈, 환상을 오가며 두 여성의 다른 세계를 충돌시키면서 이성애적 판타지와 의식 밖의 영역에 있는 동성애적 판타지의 갈등을 보여준다. 해질녘, 달을 배경으로 한 두 여성의 행글라이딩 장면이나 서커스단 여성들의 퍼포먼스 장면은 여성들에게 해방감을 준다. 이 영화의 명백한 레즈비어니즘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개봉 당시 동성애자의 성애적 장면은 검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주의사항 : 진정, 환상적인 영화적 순간을 원한다면 영화가 끝난 후 마지막 크레딧을 절대 놓치지 말 것.



아름다운 육체 THE BODY BEAUTIFUL

| 영국 | 1991 | 23분, 극영화 | 감독 엔고지 오누라 Ngozi ONWURAH |

여성에게, 어머니에게 육체는 무엇인가? 한 쪽 가슴이 없는 뚱뚱한 어머니의 늙은 육체와 건강한 딸의 젊은 육체가 그들에게 각각 동질의 의미를 갖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육체'는 유방절제술로 한 쪽 가슴을 잃은 백인 어머니와 모델인 흑인 딸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육체 이미지의 효과, 인종적 성적 정체성의 긴장, 강한 모녀 간의 유대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상, 기억과 판타지속에서 탐미적이고 도발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이 영화는 여성 육체에 부과되어 있는 것들에 관한 깊은 통찰이고 여성의 육체는 때로 쾌락, 권력, 질병 등 얼마나 많은 것들의 격전장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육체〉에는 감독의 어머니 매지 오누라가 직접 출연하는데, 그녀는 세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유방암에 걸려 한쪽 가슴을 절단했으며,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에서 힘있고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팝의 여전사 THE RIGHTEOUS BABES

| 영국 | 1998 | 50분 | 다큐멘터리 | 감독 프라티바 파마 Pratibha PARMAR |

이 작품은 여성주의와 대중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19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현대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이 영화의 초점이다.

감독 프라티바 파마는 저항적이고 도전적이며 혁명적인 록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마돈나와 애니 디프렌코 Ani DiFranco 같은 대표적인 공연자들의 활동을 통해 대중음악에서의 여성주의가 발전해왔다고 말한다.

파마는 솔직한 여성 뮤지션들과 여성주의 이론가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의 인터뷰와 여성 뮤지션들의 공연을 삽입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간다. 프라티바 파마의 이 작품은 대중음악계의 여성영웅에 대한 흥미로운 논평인 동시에 여성과 대중음악, 더 나아가서는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그룹 스파이스 걸즈 Spice Girls의 스타일을 검토하면서 여성주의의 상업화를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감독의 다른 영화인 아프리카 여성에게 자행되는 할례를 자기 반영적 방식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전사의 징표 Warrior Marks〉(1993)는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에 초청, 상영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바비 인형의 제국 I, Doll

[The Unauthorized Biography of America's 11 1/2" Sweetheart]

[미국 | 1996년 | 57분 | 비디오 | 다큐멘터리 | 각본/감독/제작 톨라 아셀라니스 Tula ASSELANIS]

바비는 195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마텔사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바비의 국적은 미국이 아니다. 흑인 바비, 기모노를 입은 바비, 한국의 디자이너 이영희가 만든 한복을 입은 바비에 이르기까지 이제 바비는 마치 코카콜라처럼, 또 할리우드 영화처럼 전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50년대 미국에서 첫 등장한 바비가 어떻게 미국을,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점령해 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인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바비의 역사는 미국의 현대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형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만 년 후, 그때의 사람들에게 바비는, 우리에게 그리스 인형이 그런 것처럼 역사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바비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60년대 와서 바비는 처음으로 직업을 가졌다. 60년대에 바비는 간호사였다. 그리고 여성해방운동이 물결쳤던 7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오면 바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또 '검은 것이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던 시절에는 흑인 바비가 등장했다. 그렇게 바비는 미국의 현대사를 몸으로 증언한다.

바비처럼 만들어주세요!

바비는 완벽한 여성이다. 여성들은 바비처럼 되기를 꿈꾼다. 바비의 얼굴윤곽, 봉긋한 가슴, 잘록한 허리는 성형수술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하물며 그 날씬하고 아름다운 바비조차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바비를 모방하는가 아니면 바비가 우리를 모방하는가?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Our Dream of Healing] - A Documentary on Sex Trafficking in Korea

[한국 | 1999년 | 57분 | 비디오 | 다큐멘터리 | 제작 매매존 근절을 위한 한소리외]

다큐멘터리 <꿈에 관한 보고서>는 어느 사창가에 모여 사는 매춘 여성들의 일상과 꿈에 관한 기록이다. 그들이 쏟아내는 것들은 텔레비전이나 소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속 시원히 드러내지 못하던 얘기들이었다. 그러나 카메라에 잡힌 그들의 모습은 더러운 창녀, 불법 유흥행위의 주범, 타고난 '끼' 때문에 사창가로 흘러 들어간 '그런 여성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시절 꿈꿨던 소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꿈에 관한 보고서>는 우리의 '언니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사회구조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남성의 배설구로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는 사회구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법, 불법이라는 안전망을 이용해 갇은 인권유린과 성착취로 자신의 배를 살찌우는 업주와 그에 기상하는 직업소개소, 단속을 빙자해 뇌물을 가로챈가며 매매존을 방치하고 있는 경찰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릇된 남성중심의 성문화까지. 저당 잡힌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조심스레 가꿔온 꿈들이 남아 있다. 소연은 분식집을 차리고 싶어하고 자옥은 공부가 하고 싶고, 숙현은 면사포를 쓰고 싶어하는 물빛 꿈들이다. 그 꿈을 위해 모두들 한걸음 내딛고 있다!

숨결 My Own Breathing

[한국 | 1999년 | 77분 | 35밀리 | 다큐멘터리 | 감독 변영주 | 제작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일 본군 위안부에 관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지난 5년 동안, 영화에 출연한 다섯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들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을 담아서 <숨결>은 완성되었다. 낮은 목소리 1, 2편이 나눔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주된 공간으로 삼았던데 비해, 이번에는 이웃이나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할머니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증언을 듣는데 집중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숨결>은 할머니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보여준다. 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질문한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과거의 고통에 관하여, 그녀는 알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 묻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은 곧 과거에 관한 대화이며, 그들의 대화는 현재가 개입할 수 없는 지난 역사의 완전한 복원이다. 영화의 전반부는 이것을 지켜보는 카메라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반부에 이르러 질문은 현재로, 나의 역할로 돌아온다. 나는 할머니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과거와 나의 현재는 어떻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의 시간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그녀들의 얘기를 들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최보은 아줌마와의 대화

씨네21 「아줌마 극장가다」코너의 최보은 아줌마를 아시나요?

최보은이라는 이름 뒤에 ○○○편집장, 혹은 칼럼리스트 대신 당당히 아·줌·마라는 세 글자를 붙이는 여자.

100명의 신사임당보다 한 명의 악녀가 낫다고 주장할 때, 사임당을 헐뜯는 게 아니라 사임당을 포장해서 팔아먹는 시대정신을 욕한다는 여자.

<아메리칸 뷰티>를 보고, 흔히 통과의례로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남성 자위에 비해 여성 자위의 대중성 없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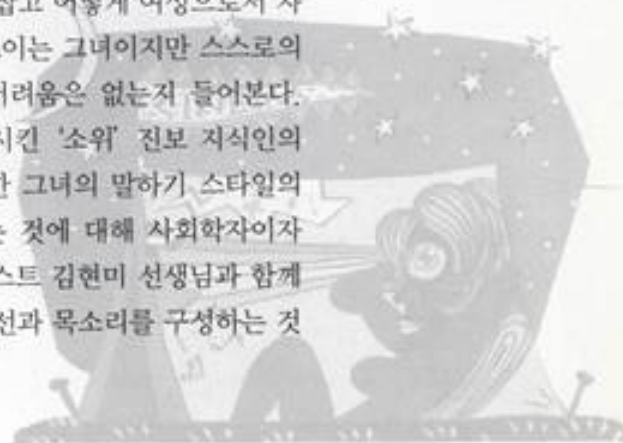
세상에서 아는 최대의 저주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결혼이나 해라"라고 생각하는 여자.

여성의 적은 남성이라는 물매 맞을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여자.

우리 여자들이 이나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다 '미친년'들이 닦아놓은 자유로 덕분이라고 말하는 여자.

전투적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여자.

씨네21이라는 굉장히 대중적인 잡지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거침없는 말하기로 드러내는 최보은 아줌마!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구성하고 드러내는 것이 엄청난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시선과 목소리로 대중적인 잡지를 통해 새로운 영화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최보은 아줌마가 대중 잡지라는 남성적인 공간에서 당당하게 자리잡고 어떻게 여성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구성하는지, 거침없이 보이는 그녀이지만 스스로의 언어를 구성하는데 내부적 검열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들어본다. 여성으로서의 말하기와 김어준이 유행시킨 '소위' 진보 지식인의 '막 나가는' 말하기 방식과 매우 유사한 그녀의 말하기 스타일의 경계 위에서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을 하고 계신 또 한 명의 페미니스트 김현미 선생님과 함께 얘기해보고 여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시선과 목소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연세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활하게 되는
공간이나 활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세일상의 사소한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한 쉽지않은 문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입니다. 오호~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즐거운
여성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네요.

모반에서는 가을여성제를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연세라는 공간
에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편함들을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과방, 강의실 또는 학내의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또한 학내
뿐만 아니라 술자리 또는 현장활동이나 연고전이나 대동제 기간 중 나
타나고 있는 남성중심성, 성 상품화, 가부장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
었습니다. 연세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활하게 되는 공간이나 활동에
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세일상의 사소한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만,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한 쉽지않은 문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
다. 아주 재미있게..

어떻게냐고요? 연세 곳곳에서 나타나는 남성중심성, 가부장성에 대해
바로 그 장소에서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내용
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유행가사처럼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라고 할
수 있죠. <이갈리아의 딸들>을 읽어보셨죠?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에게 부여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고 그 견고한 벽을 깨뜨리고자 시도
하는 의미가 담긴 행사이니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다른 편에서 생
각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많은 문
제들에 대해 짚어보고 그를 통해 연세라는 공간을, 여성 또는 남성이라
는 이유로 더 불편하지 않은, 자유로운 연세를 모색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여성제 기간에 학내 곳곳에서 저희와 함께 하세요.



함께한 이들

총기획	강김정임 (총여학생회장), 김임은정 (부총여학생회장)
팸플렛·포스터	신백나리 (총무/사무국장), 윤설대원 (총여학생회 집행부)
집행실무	박성옥수 (총여학생회 집행부)
만화거리전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표름, 달리, 쉬리, 무궁, 미르, 파룬, 은현, 돌음, 델
도역주신 분들	강지, 틴튼, 썬아, 단아, 꾸리, 락거, 병욱, 경은...

